

## 국제유가 급락 코멘트

화요일 WTI는 7.3% 급락한 46.24달러로 마감. 10월 초 고점 대비 39% 하락  
수요 둔화 및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  
OPEC과 비OPEC 감산의 효과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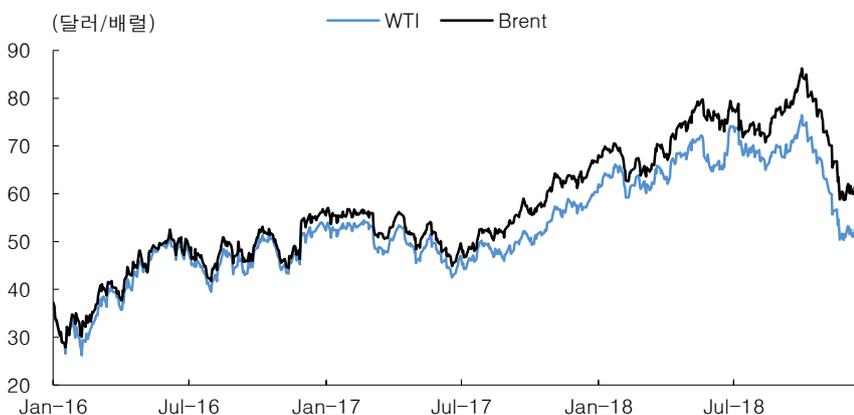
### 지속되는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

국제유가가 다시 한 번 급락했다. 화요일(18일) WTI는 7.3% 급락한 배럴당 46.24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10월 초 고점 대비 39% 하락한 것이며 지난해 8월 말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Brent 역시 5.6% 하락한 배럴당 56.26달러로 마감했다.

OPEC과 비OPEC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급락한 이유는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감산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11월 소매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등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동차 판매는 약 7년 만에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게다가 유로존 역시 11월 제조업 PMI가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전반적으로 석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림 1] 국제유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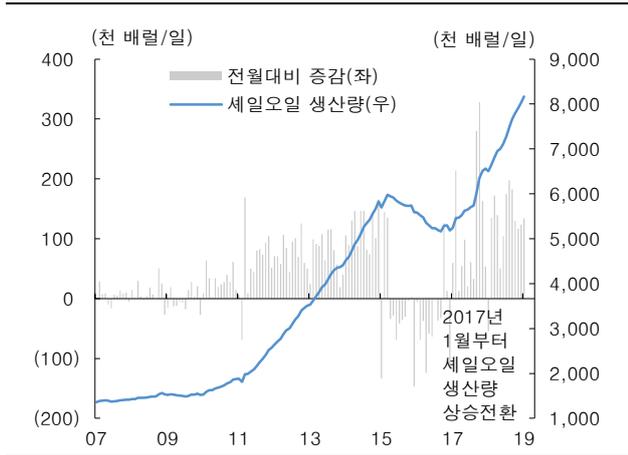
서태종

taejong.seo@truefriend.com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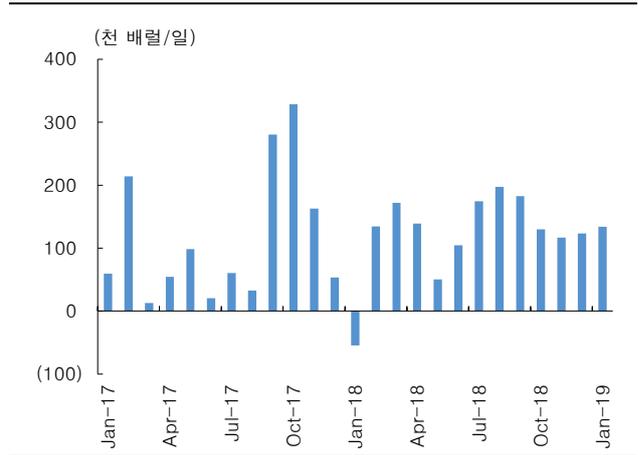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공급 이슈 역시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월요일에 EIA(미국 에너지정보청)가 발표한 Drilling Productivity Report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셰일오일 생산량은 각각 12.3만 b/d, 13.4만 b/d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은 처음으로 800만 b/d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림 2]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전월 대비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분



자료: EIA, 한국투자증권

**12월 러시아 산유량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

게다가 로이터는 산업 관계자들을 인용해 12월 러시아의 산유량이 1,142만 b/d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OPEC과 비OPEC의 감산 합의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시행 직전 산유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지난 7일 OPEC과 비OPEC이 120만 b/d를 감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유가의 하방 경직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감산이 2019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좀처럼 수요 둔화 및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는 이상 유가의 반등세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증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